

■ 서울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2년 연속 '세계 6위'

서울시가 2013년 '세계도시 국제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40개 주요 도시 중 6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매년 10월에 공식 발표하는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랭킹 'GPCI(Global Power City Index,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 평가 결과에서, 서울시가 2013년 평가에서도 싱가포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6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재난 및 안전 관계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기도는 10월 31일 용인한화리조트에서 재난 및 안전관계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고자 도, 시·군 재난 및 안전 담당과장과 팀장, 시·군 자율방재단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 인천시, 11.2일 2013 송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막

인천시와 연수구는 오는 11. 2 ~ 11.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GCF 인천 송도 유치 1주년을 기념해 미래 환경외교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3 송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2013 SONGDO Model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SMCOP)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참가학생 300명, 참관인 300명과 후원기관 대표를 비롯한 일반 참관객 400여명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도, 2013년 강원도 에너지위원회 개최

강원도는 2013. 10. 31(목) 11시 30분부터 춘천 세종호텔 소양홀에서「2013 강원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제11회 강원도 에너지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곧 다가올 동절기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강원도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제 11회 강원도 에너지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다가오는 11.29(금)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행사시 시상 할 예정이다.

■ 충북도, 가을철 산불 제로화 종합대책 추진

충청북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수립과 가을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을 산불 제로화'를 추진한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4개 기관에 산불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 확보는 물론 홍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으며, 각 시·군별로 기동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사업 추진

충청남도는 농어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안전한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2016년까지 총 24억을 투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첫 사업 대상지는 논산시 부적면으로, 2014년 총 4억원(국비 2억, 지방비 2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취약계층 기후적응 안전망 구축 ▲야외 기후적응 쉼터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작물 컨설팅 ▲기상재해 대비 세이프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 대전시, '2018 IDF 연차총회' 대전 유치 확정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채훈)와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세계 낙농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8 국제낙농연맹(IDF,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총회'를 대한민국 대전에서 유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IDF 총회 유치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4번째 개최국이 되며, 2006년 IDF 가입이후 7년만에 세계적 낙농행사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동 행사는 세계 54여개 국가에서 1,5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북도, 자연재해에도 이젠 걱정 안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더욱 확대되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젠 농업인은 농작물 생산에만 전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전북도 유통가공과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7년까지 신규로 도입할 재해보험대상 품목으로 농작물 13개를 일괄 선정해 수혜의 폭이 더욱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도입되는 품목은 '14년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과, '15년 시설무·시설백합·시설카네이션, '16년 양배추·밀·시설미나리 및 '17년 시설쑥갓·오미자·무화과·유자 등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40개 품목에서 53개 품목으로 확대됨으로써 거의 대부분 농업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에서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에서 보상받게 된다.

■ 전남도, 너울성파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안전수칙 홍보

전라남도가 너울성 파도, 이상파랑 등에 의한 해안가 피해가 10월에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너울성파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인명피해가 있었던 너울성 파도 발생 13건 중 절반이 넘는 7건이 10월에 집중됐다. 전체 사망·실종자 35명 중 10월이 전체의 51%(총 35명 중 18명)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너울성 파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

■ 광주시, 2013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소방방재청 2013 민방위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30일 오후 1시30분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장민방위대 간부요원 소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시 산하기관 사업소장, 자치구 부구청장, 동장, 학교장, 업체 대표자 등 직장민방위대장 2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국가 안보관을 확립하고, 각종 재해와 재난 발생시 대처 능력과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실상과 우리 안보(북한이탈주민 지현아) △방사능 방재대책(조선대 정운관 교수) △민방위대장이 알아야 할 사항 △심폐소생술(대한적십자사 노경석) △건강관리(보건대 김명훈 교수) 등을 교육한다.

■ 경북도, 육상양식장 적조 대비 '만전'

경상북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육상 해수양식장(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대한 취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경북 동해안에는 총 99곳의 육상 해수양식장이 있다. 이중 해수 취수구가 모래층에 파묻힌 곳이 29곳, 수중에 노출된 곳이 70곳으로 적조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올해 동해안에 발생한 적조로 양식장 29곳에서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26곳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이었다. 취수구가 바다 밑에 묻힌 양식장에는 피해가 없었다. 이에 따라 포항 4곳, 경주 2곳, 영덕 3곳, 울진 16곳 등 모두 25곳에 대해 총사업비 12억2천만원(보조 80%, 자부담 20%)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대구시, 세계적인 물 산업 허브도시로 도약 꿈꾼다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제2회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렸다. 대구시는『제2회 대한민국 물산업전』을 계기로 2015년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물산업 허브를 구축해 Post-세계물포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울산시, 2013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제 돌입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협업체제 구축과 조기 대응으로 '안전도시 울산'을 건설하기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이 수립된다. 울산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설과 한파 등 기상 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대응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 100년 홍수에도 든든한 하천 정비

경남도는 기후 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2014년도 하천정비사업 159개소에 3,11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수해상습지 개선 등 수해예방 하천정비사업에 73개소 1,223억원을 투입하여 100년 빈도 홍수에도 든든한 하천을 조성하고, 풍요로운 하천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등에는 57개소 1,858억원을 투입하여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유치확정-전력분야 창조경제 견인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R&D전략센터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대규모인 1,500억 원 사업 규모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24호 태풍 '다나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8일 어간에 제주도를 강타한 제24호 태풍·다나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10곳에 대한 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최종 피해복구금액을 2,478백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완료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지방관리 어항 2곳(대포항, 법환항)과 기타 연안시설 7곳에 대하여는 도 자체 예비비 476백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태풍피해 항구복구에 나서기로 하고 국가관리 어항인 하효항은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항구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세종시,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 만들기 추진기반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종건설'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안전 챙기기에 본격 나선다.

세종시는 시교육청·행복도시건설청·경찰서 등 행정기관 8명, 민간단체 17명, 공공기관 6명 등 총 31명으로 '세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세종시 안문협)'를 구성하고,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는다.